

나눔을 통해 연대하며 연합감리교회는 삶을 변화시킨다.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회 인터프리터 매거진 7, 8 월 이슈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글입니다.)

*Hilary Taylor*는 3년 동안 총회세계선교부와 선교 인턴(commisioned Mission Intern, 현 세계선교구 특별연구원)으로 일했다. *Hilary*는 인턴 경험에 대해 "총회세계선교부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교회, 기독교인의 사명,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씨름하게 되었거든요."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Banyam* 신학교가 태양열 전기를 위한 기금을 받기 전까지, 신학생 *Wala Zubairu*는 밤에는 고작 두세 시간만 공부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전력 시스템 덕분에 저는 원하는 만큼 실컷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학기 학점은 'B'였는데, 태양열 전기 시스템이 설치된 후에는 성적도 올랐어요, 'A'학점을 받았거든요."

메릴랜드 주 *Gaithersburg*에 위치한 *Epworth* 연합감리교회는 매주 영어와 스페인어로 예배드리면서 "의도적으로 다문화, 다국어를 지향하는 공동체"라고 담임 *Jennifer Fenner* 목사는 말한다. 백인이 압도적이던 교회를 변화시키면서 CORR Action 기금의 도움을 받았다.

*Carson Jones*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Lake Junaluska*에 위치한 연합감리교회 수양관에서 열리는 미 원주민 하계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다. 최근 몇 년간, *Jones*씨의 딸은 Rumbree 부족인 아버지 *Jones*씨를 따라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Jones*씨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기도 하고, 제 딸이 우리와 비슷한 아이들을 만나니 좋군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뛰놀고, 공예를 하면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연합감리교인은 관대한, 그것도 아주 후한 사람들이다. 2014년, 그들은 1억 3천 5백만 불이 넘는 돈을 교단 사역을 지원하는 헌금으로 드렸다. 또 다른 3억 7천 3백만 불은 교회와 관련 및 다른 자선 활동, 이를테면 수프 키친(soup kitchen)이나 옷 수집 운동에 사용하였다. 교인들은 국내나 국제적인 재난에 반응하여 2천 8백만 불을 헌금하였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헌금함에 헌금을 넣거나, 온라인 기부를 승인할 때, 그 단순하지만 관대한 행동이 먼 곳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달러당 85 센트에 해당하는 가장 큰 부분이 개체교회의 사역과 선교에 사용된다. 나머지 15 센트는 연대사역을 지원하는데, 이는 개체 교회, 지방회, 혹은 연회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연대를 맺어 아주 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그 15 센트 중에서 2 센트는 교단 선교분담금을 지원한다. Taylor, Zubairu, Fenner 는 교단 선교분담금에 의한 7 대 기금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원 및 다른 자원을 경험하는 수백 만 명을 대표한다. 그 기금을 교단선교분담금 1 억 3 천 5 백만 불을 들여 지원했다고 총회재무행정협의회가 밝힌다.

또 다른 7 센트는 지방회, 연회, 그리고 지역총회를 통해 선교와 사역을 지원한다. 나머지 6 센트는 특별주일헌금, 세계선교특별헌금과 특별선교헌금 (The Advance)으로 지급한다.

총회는 선교분담금 총액을 승인한다.

매 4 년마다 총회 (General Conference)는 4 개년 회기에 필요한 교회 전체 예산과 각 선교분담금에 의한 기금의 총액을 승인한다. 총회재무행정위원회와 연대사역협의회는 일반 교단 예산을 청원한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인, 각 연회에서 선출된 평신도와 교역자 총회 대의원들은 토론과 조정을 거쳐 마침내 4 년기를 위한 예산을 결정한다.

지난 4 월에 모인 2016 총회는 2017 - 2020 의 4 년 회기를 위해 6 억 4 백만 불 예산을 승인했는데, 2013 - 2016 예산에서 약간 증가한 것이다.

일단 승인이 되면, 총회재무행정위원회 직원들은 연회별로 총액을 나누는데, 각 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운영비를 토대로 만들어진 계산공식을 사용한다. 그러면 연회 직원은 다양한 공식을 사용하여 자기 지역의 몫을 개체 교회들에게 할당한다.

현재 사용하는 분담금 체계는 약 100 년 전의 것이다. 감리교가 점점 번성하고 헌금이 증가하던 20 세기의 첫 30 년 동안에 만들어졌다. 1924 년 연합감리교회의 전신인 미(북)감리교회 (Methodist Episcopal Church)는 세계 선교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총회재무행정협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분담금은 전 세계에 연합감리교회의 사역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7 가지 교단기금을 지원한다. 2012 년 장정에 따르면, "개체교회가 분담금을 전액 지불하는 일이 교회의 첫 선교적 책임이다" (247.14).

세계봉사기금 (World Service Fund)이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 교회를 개척하고
-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 선교사들에게 봉급을 주고
- 사회 원칙에 일치되는 노력을 지원해주고
- 젊은이 사역에 리더십을 제공하고
- 교단이 후원하는 광고에 광고료를 지불한다.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돕고 있다.

세계봉사기금은 수 많은 선교와 사역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교회의 총회기관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연합감리교회 사회부 (Church and Society),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Global Ministries),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Discipleship Ministries), 연합감리교회 인종관계위원회 (Religion and Society), 여권신장위원회 (Status of Role of Women), 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 (United Methodist Men),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이다.

Taylor 는 선교구 인턴이 되어 처음에는 남아프리카 Pietermaritzburg 에 있는 Seth Mokitmi 감리교신학교에서 현장교육과 사역 간사로 일했다. 그는 신학생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후, 마이애미에 있는 재정 안정을 위한 United Way 센터에서 재정 코치로 일했다. 두 곳에서 모두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를 일구는 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관계를 맺고 상상력을 통해 풍부함을 창조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말이에요. 의심할 것 없이, 저는 지난 몇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해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총회세계선교부는 '세대 변혁' (Generation Transformation)을 통해 청장년들이 단기 선교를 경험할 기회도 여러 가지로 제공한다.

세계 선교에 포함되는 해외지역 총회 신학교육 기금(Central Conference Theological Education Fund)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목회 훈련을 지원한다.

Zubairu 는 그가 다니는 신학교를 위한 기금에서 나온 장학금 덕분에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금은 출판물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신학 서적을 전자서적으로 읽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총회는 예산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해외지역총회의 신학교육을 위한 기금을 5 백만 불에서 2017-2020 회기에는 1000 만 불로 증액 승인하였다. 총회는 또한 해외지역총회가 총회행정 기금 (General Administration Fund)으로 정한 75 만 불의 한도액을 넘는 기금은 신학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총회인종관계위원회 행동기금 보조금은 총회인종관계위원회가 범문화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종편견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한 방법이다.

Fenner 는 “Epworth 교회가 주위의 청소년들과 공동체에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 할 때, 이 기관 기금의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기관은 언제나 의도적인 범문화적이고 문화간 목회에 앞장서 주었고, 그에 따르는 도전을 이해해 주었어요.”라고 말한다.

“총회재무행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교회의 95 퍼센트는 백인이다”고 인종관계위원회에서 조직적인 책임의 리더로 일하는 *Amy Stapleton* 목사는 말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바꾸어 각 사람과 회중이 서로 다른 문화의 목회 경험을 갖추고, 준비하며 포용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대학교기금 (Africa University Fund)

짐바브웨의 Mutare 에 위치한 아프리카 대학은 2017 년에 25 주년을 맞게 된다. 6 월 11 일, 이 대학에서는 대학 역사상 가장 많은 아프리카 대륙 22 개국에서 온 841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다. 졸업생의 54 퍼센트가 여성이었다. 6 천여 명이 넘는 동문들이 농업, 경영학, 신학, 건강과학 같은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학 기금은 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기타 다른 리소스들을 제공한다.

교역자양성기금 (Ministerial Education Fund)

미래에 전문사역을 하려는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여러 단계의 안수과정을 준비하도록 지원해 준다. 일부 기금은 연회에서 제공하는 본처 목사 (local pastor)의 교역자 자격과정 (Course of Study)을 돕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금으로 신학 교육비를 부담하고 연장교육을 제공한다.

Dennis Miller 목사가 전임목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기혼에 심각한 의료를 받는 아이도 있었다. 신학교를 전임 (full-time)으로 선택할 상황이 아니었다.

잠깐 동안 변호사를 했던 Miller 목사는 인허 받은 본처 목사 (Licensed local pastor)가 되어 교역자 자격과정 (Course of Study)을 밟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년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로 옮기고 2006 년 미주리 주 Nixa 에 위치한 Aldersgate 연합감리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Miller 목사가 부임한 후, 평균 250 여명이었던 예배 참석 인원은 600 여명으로 크게 성장했다.

흑인대학기금 (Black College Fund)

“만일 흑인 대학이 없었다면, 만들어졌어야 했을 겁니다.” 라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Greensboro 에 있는 Bennett 대학의 15 대 총장 Johnnetta Betsch Cole 은 말한다. 이 대학은 연합감리교회 계통의 전통적인 11 개 흑인 대학과 흑인 대학교에 하나로 속해있다. 많은 학생들이 가족 중에서 처음 대학 교육을 받는다. Virginia Tech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흑인 남성들이 백인이 다수인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 전통적인 4 년제 흑인 대학을 졸업할 경우 평생 동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실 기금 (Episcopal Fund)

교회 안팎으로 의견을 내도록 선출되고 선별된 감독은 미국에 46 명, 해외지역총회에 20 명이 있는데, 봉급과 사무실, 여행경비, 연금, 건강보험 혜택을 감독실 기금에서 받는다.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해외지역 총회, 아시아, 그리고 유럽 연합감리교회도 이를 지원한다.

교회연합사업협력 기금 (Interdenominational Cooperation Fund)

총회가 스웨덴에 있는 Uniting 교회와 Moravian 교회 (Moravian 교회의 허가는 아직 미확정)와 ‘온전한 공동체’ (full communion) 관계를 승인했을 때, 총회는 총감독회(Council of Bishops)의 교회연합사업팀 (OCUIR--Office of Christian Unity and Interreligious Relationship) 직원들이 한 일을 인정해 주었다.

'공동체'는 두 개 이상의 교회들 간의 관계로

- 서로서로 성경에 묘사되고, 교회의 역사적 신경 (creeds)으로 고백되는,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들로 인정한다.
- 상대방의 성례전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고, 서로 상대방의 성만찬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
- 상대 교회의 그리스도 사역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 상대방의 사역팀이 정당함을 인정해준다.

연합감리교회와 '공동체' 관계에 있는 교회로는 미국 Evangelical Lutheran 교회, 노르웨이 Lutheran 교회, 스웨덴 United 교회, Pan-Methodist 교회: African Methodist Episcopa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African Union Methodist Protestant and Union American Methodist Episcopal 등이 있다.

교회연합사업팀 (OCUIR) 직원은 성공회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천주교와도 서로 대화한다.

이 기금은 또한 연합감리교회가 전 세계에서 있는 기독교인의 연합을 옹호하면서 초교파적이고 범종교적인 조직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총회행정기금 (General Administration Fund)

교회의 행정 활동을 재정하는 것부터, 총회가 공식적인 연합감리교회의 서류와 역사적인 유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기본 경비의 인수까지, 이 기금은 감시하고 재무 책임이 있는 신뢰할 만한 체계를 확실하게 한다. 이 기금은 총회재무행정위원회와 총회교회역사 보존위원회를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함께 가기 (Going 'the second mile')

특별선교헌금 (The Advance)

연합감리교를 위해 지정된 헌금이 전달되는 통로이다 - 전 세계의 850 개의 사역과 300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돕는다. 총회세계선교부 직원이 재검토하고 기금에 해당되는 각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특별선교헌금을 위하여 모금된 기금은 헌금한 이가 지정한 프로젝트를 위해 100 퍼센트 사용된다.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개별 선교사들과 선교 발의 (mission initiative)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다.

Belize 에는 정부 보조의 부족으로 중등교육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Belmopan* 감리교 고등학교가 건축되어 380 여 명의 어린이와 20 명의 교사, 그리고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 식품을 파는 동네 노점 상인들의 삶까지 바뀌었다.

*캄보디아*에 있는 지역 건강과 농업개발사업 프로그램 (*CHAD-Community Health and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은 최근 1,184 명을 의료 보조와 생계 지원을 하였으며, 73 개 감리교회들을 통해 25 개의 소 사육그룹과 25 개의 닭 사육그룹을 만들었다.

*네브래스카*와 *캔자스* 주의 '커다란 텃밭' (*Big Garden*)은 2005 년부터 만들어져 온 80 개가 넘는 자립적인 텃밭들을 영양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신선한 식료품실, 학교, 주일학교, 하계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영양가 많은 간식들, 공동 식사, 요리 강습, 씨앗 은행,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to-Cafeteria*)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특별선교헌금을 통하기 원하는 사람은 지역별 프로젝트를 찾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진 사역부문을 찾을 수도 있다. 특별선교헌금에서 현재 실시하는 프로젝트들은 www.umcmission.org/advanc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금을 드리는 특별 주일 (Special Sundays with Offerings)

2016 총회는 6 개의 특별 주일을 매년 계속 지키고, 날짜와 헌금 사용법을 지정했다. 개체교회의 사정에 맞추어 다른 주일에 지킬 수도 있다.

인간관계주일 (Human Relations Day) – 2017 년 1 월 15 일

인간관계주일 헌금은 총회세계선교부의 지역개발 프로그램 (community developer program)을 지원한다. 또 비폭력 청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옹호, 리더십 훈련 및 개발을 제공하는 총회사회부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카고에 있는 Clare Christian 연합감리교회의 '학습 체육관' (Learning Gym)은 도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체육경기, 학업 향상, 그리고 삶의 기술과 관련된 워크숍이 일 년 내내 열린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학습 체육관'에 오는 학생들이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 미래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지역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Ed Bickham 은 말한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주일 (UMCOR Sunday) – 2017 년 3 월 26 일

과거 '빈곤퇴치주일' (One Great Hour of Sharing)로 불렸던 이 특별주일은 선교분담금에 의한 기금을 받지 않는 연합감리교회구호위원회의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이 헌금은 연합감리교회구호위원회가 기부받은 돈의 100 퍼센트를 음식, 대피소, 건강과 평화 등 지정된 사역에 쓰이도록 해준다.

미원주민선교주일 (Native American Ministries Sunday) – 2017 년 4 월 30 일

이 주일은 미원주민이 교회와 사회에 기여한 것을 축하한다. 헌금 일부는 연회의 미원주민 사역을 지원한다. 또 일부는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연계하여, 시골, 도시 그리고 미원주민 거주지에 사는 미원주민 회중, 사역 및 공동체를 지원한다. 또한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를 통해 관리되는 미원주민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Jones 씨와 그의 딸을 Lake Junaluska 로 이끈 컨퍼런스는 이 헌금 지원을 받는 사역의 하나로, 참석자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

가족이 출석하는 Triad 연합감리교회의 임원회장 Daphne Locklear Strickland 씨는 "보통 사람에게 이것은 작은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Carson 씨과 딸은 이 컨퍼런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동남부 지역에서 온 다른 미원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신들의 유일한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평화주일 (Peace with Justice Sunday) – 2017 년 6 월 11 일

총회사회부는 2015 년에 받은 헌금에서 15 개의 정의와 평화 보조금을 지급했다. 지원한 사역에는 필리핀에서 '생계수단이 필요한 젊은 엄마'들을 위한 사역', 독일에서 열린 사회 원칙 세미나, Justice for Our Neighbors, Fossil Free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감옥을 위한 사역 등이 포함된다.

세계성찬주일 (World Communion Sunday)- 2017 년 10 월 2 일

이 헌금은 미국 내 혹은 외국에서 온 소수 인종 출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가 장학금을 관리한다.

연합감리교회 학생주일 (United Methodist Student Day) - 2017 년 11 월 27 일

이 헌금은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가, 교회 계통이나 인가받은 타 대학교에 다니는 연합감리교인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대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준다.

글쓴이 신디 솔로몬은 테네시주 *Franklin* 에 거주하는 마케팅 컨설턴트이자 콘텐츠 작가이다. 이 기사는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웹사이트, www.umcmmission.org, UMNS 기자 **Sam Hodges**, 서부 짐바브웨 기자 **Priscilla Muzerengwa** 와, Interpreter 잡지의 자유 기고가 **Sophia Agtarap**, 그리고 "Revival of Stewardship and Creation of the World Service Commission" 등이 도움을 주었다